

감상적 표현으로 환상 부추기는 대중문학

본격문학과 대중문학 가르치는 잣대는 무엇인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에서 준별점 찾을 수 있어

이남호 | 고려대 국교과 교수·문학평론가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을 나눌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의미 있는 기준은 ‘진실탐구’ 여부에 있다.

본격문학은 삶과 세상의 진실을 탐구한다. 그러나 대중문학은 진실탐구의 기능을 외면하고

오락적 기능에 열중한다. 본격문학은 상투적 일상성 속에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려고 애쓴다.

그러나 대중문학이 말하는 진실은 일상의 표면적, 상투적 진실일 뿐이다.

일상적 삶의 고통을 감상으로 포장하고, 삶과 세상의 모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을 크게 두가지로 나뉘 본다면,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으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중문학은 통속문학과 비슷한 범주고 본격문학은 순수문학 또는 고급문학 등으로 달리 불리기도 한다. 어쨌든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은 다른 종류의 문학을 지칭하는 개념이고, 그것들의 경계는 모호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다른 것이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의 경계는, 마치 봄과 여름의 경계 또는 바위와 돌의 경계 또는 높고 큰 산과 낮고 작은 산의 경계에 비유될 수 있다. 즉, 그 경계를 분명한 선으로 표시할 수 없고 경계의 근처에서는 두가지가 서로 뒤섞여 있지만, 그래도 그 경계에서 조금 멀어지면 분명히 다른 성격이 확연히 나타난다.

거리 두고 냉정하게 바라 봐야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오해는 이런 경계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면이 크다. 대중문학을 옹호하는 어떤 사람은, 대중문학이 본격문학보다 더 훌륭한 문학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본격문학이 대중문학보다 훨씬 고상하고 우월하다는 생각은 엘리트 의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과 비판은, 경계 근방에

서는 옳다고 할 수 있다. 마치 늦봄의 어느 날이 초여름의 어느 날보다 더 기온이 높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또 채석장의 돌이 언덕 위의 바위보다 더 클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봄이 여름보다 덥다거나 돌이 바위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듯이, 대중문학이 본격문학보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애매한 경계 근방의 혼란을 일반화해서는 안되고, 경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양쪽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흔히 대중문학은 쉽고 재미있고,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 팔린다고 한다. 이에 비해 본격문학은 어렵고 재미없고 읽기가 힘들어서 적게 팔린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람들이 대중문학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일부를 제외한 대중문학은 오히려 본격문학보다 더 안 팔리는 경우도 많고 더 재미없는 경우도 많다. 대중문학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줄 알지만, 안 팔리는 대중문학이 더 많다. 본격문학은 그 생명이 오래 가지만, 대중문학은 쉽게 잊혀진다는 지적도 꼭 맞는 말은 아니다. 본격문학이 오히려 유명한 대중문학보다 훨씬 먼저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표면적인 현상

속에서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을 가르치는 잣대를 구하기는 어렵다.

‘진실 탐구’ 여부가 잣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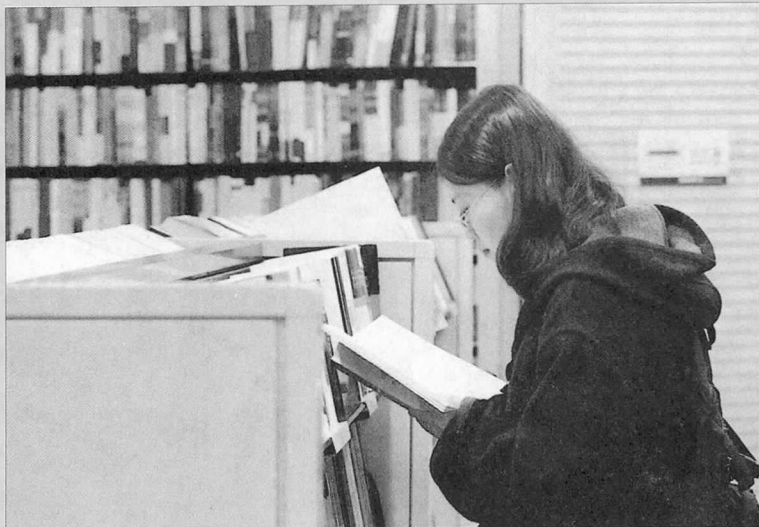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을 나눌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의미 있는 기준은 ‘진실의 탐구’ 여부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본격문학은 삶과 세상의 진실을 탐구한다. 그러나 대중문학은 진실 탐구의 기능을 외면하고 오락적 기능에 열중한다. 본격문학은 상투적 일상성 속에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려고 애쓴다. 그것이 작품을 쓰는 일차적 목적이 된다. 본격문학 작가들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작품을 쓴다. 그래서 본격문학은 독자들에게 진실을 대면하는 고통과 기쁨을 준다. 이에 반해서 대중문학은 상투적 일상성에 편승해 진실을 감추고 오히려 환상을 부추긴다. 독자들에게 거짓에 안주하는 심리적 안락함과 오락적 요소에 의한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 때때로 대중문학이 사람의 심금을 더 많이 울리고 더 절실하고 절박한 감동을 준다. 어떤 대중문학은 참으로 애절하고 기구한 사연을 보여준다. 그런 것들이 어찌서 진실하지 않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진실은 그럴 듯한 일상의 표면적, 상

투적 진실이다. 그런 것들은 상투적 진실과 상투적 감정에 호소한다. 일상적 삶의 고통을 감상으로 포장하고, 삶과 세상의 모순을 외면한다. 그래서 그것은 진실로부터 파생된 감동이 아니다. 그 감동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가짜 감정이나 가짜 욕망 그리고 상투적 의식을 부추김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대중문학의 언어 또한 그런 허위 의식을 강화한다. 대중문학의 언어들은 대개 상투적 표현들로 감상에 호소한다. 그것들은 세상의 진실된 모습, 우리가 알지만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낯설게 드러내지 않고, 익숙한 상투적 표현들로 드러낸다. 숨은 진실을 낯설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뻔한 진실을 감상적으로 포장해서 낯익은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문학은 읽기가 편하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숨은 진실을 대면케 하는 불안을 주지도 않으며 또한 정신을 긴장시켜야 하는 낯선 표현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적 요소들을 제공한다.

환상과 가짜욕망 심어주는 대중문학

문학에서 진실의 탐구가 어떤 것인지, 또 대중문학이 진실을 어떻게 은폐하고 가짜 감정과 가짜 욕망을 부추기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좋은 사례가 되는 작품이 있다. 플로베르가 쓴 《보바리 부인》이 그것이다. 《보바리 부인》은 당시 실제로 있었던 어떤 허영심 많은 유부녀의 간통사건과 그로 인한 파멸을 소설화한 것으로, 현대소설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보바리 부인의 삶을, 또는 삶의 진실을 아주 냉정하게 탐구한다. 그는 일상적 삶의 실제 모습이 얼마나 권태롭고 구질구질하고 거짓투성이인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일상의 진실을 거부하고 허영을 좇는 보바리 부인의 삶이 어떤 파멸의 과정을 겪게 되는가도 차갑게 보여준다. 《보바리 부인》은 독자들에게 보바리 부인이 지냈던 삶에 대한 환상의 정체를 알려주고 삶의 고통스런 진실을 대면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이런 점



때때로 대중문학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절실하고 절박한 감동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감동은 가짜 감정이나 가짜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사진은 서점에서 독서에 몰두하는 한 독자.

에서 《보바리 부인》은 본격문학의 모델이 된다.

한편, 《보바리 부인》 속에는 대중문학의 모델이 되는 '소설'도 나온다. 작품 속에서 보바리 부인은 엄격한 분위기의 수녀원에서 소녀시절을 보낸다. 그녀는 3류 통속 애정소설을 몰래 탐독하며 수녀원 바깥 세상에 대한 꿈을 키운다. 세상과 단절된 채 생활하는 어린 소녀는 바깥 세상이 삼류 통속 연애소설과 같은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녀는 수녀원에서 나와 나이가 많고 뚱뚱한 시골 의사와 결혼했지만, 그 생활이란 그녀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 견딜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보바리 부인의 비극은, 소녀 시절 탐독했던 통속 애정소설 속에 이미 그 씨앗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보바리 부인에게 현실의 진실을 보여주는 대신 허황된 환상과 가짜 욕망을 심어줬던 그 통속 애정소설을 우리는 대중문학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통속 애정소설이 보바리 부인의 삶에 끼친 영향은 극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과 삶의 진실성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점은 오늘날의 대중문학도 마찬가지다. 가령 대중문학은 밀러리즘, 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감상적이고 근거없는 낙관주의 같은 것을 유포시킨다. 또 삶의 고통과 좌절과 시련을 아름답게 포장하기도 하고, 거짓 꿈을 만들

어내기도 한다. 또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나쁜 방향으로 자극하고 키운다. 정도의 차이도 크고, 다른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중문학이 이런 부정적 면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수준 이하의 본격문학도 많아

대중문학 and 본격문학의 이런 구분은, 앞서 말했듯이, 그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입장에서 해본 것이다. 그 경계의 부근에는 삶의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본격문학도 많고, 꽤 긴장된 언어로 삶의 어떤 진실을 나름대로 파헤친 대중문학도 있다. 특히 최근에 본격문학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대부분 작품들은 대중문학 and 본격문학의 경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거의 모든 영화가 대중예술이 된 것처럼, 곧 모든 문학도 대중문학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대중문학의 수준일 것이고, 필요하게 되는 것은 그 수준을 재는 잣대일 것이다.●